

# 草梁倭館의 創建, 修理 및 重修에 관한 研究

金純一

(釜山大學校 教授)

鄭禮晶

(釜山大學校 博士課程)

## 1. 서론

### 1-1 研究의 目的

1678년에 설치된 草梁倭館은 조선 역대 왜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오랫동안 존치되었으며, 10여 만평의 기지를 배경으로 東館 三大廳과 西館 三大廳 그리고 倭側私造家舍 등이 복합된 양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200여 년의 존치 기간 동안 창건공사와 21건의 수리공사가 이행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조정은 조선의 땅에 세워진 '倭人居留地'인 왜관의 감독과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결과 왜관기지 내의 여러 건물을 조선측 조영건물과 일본측의 조영건물로 조영주체를 구분하고, 差倭와 소통할 수 있는 譯官을 감독관으로 삼아 양국의 의견을 조정하는 등, 일반적인 관아건축과 다른 인력조직과 공사체제를 편성하였다. 또한, 왜측은 일본의 양식을 지키기 위해 많은 수의 목수를 들여오고 하거나 대마도에서 쇼오지(障子·장지)<sup>1)</sup>를 제작하여 반입함으로써 한정된 거류지 안에서 최대한 그들의 문화가 이루어지도록 꾀하였다. 그리하여 초랑왜관은 監董譯官으로 대표되는 조선측 공사조직과 監董差倭로 대표

되는 일본측 공사조직이 상치된 쌍방의 입장을 조정하면서 조영활동을 전개하는 장소가 되었으며, 조·일 양국의 건축기술이 만나는 장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관 창건공사에는 150명의 왜목수 외에 다수의 조선목수와 부역군이 투입되었고, 수리공사 때에도 양국의 조영인력이 함께 동원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조·일 양국이 왜관을 통해 서로의 공사기술과 방법, 공사조직의 체제, 공사도구 등을 경험하고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초랑왜관은 일반 관영건축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조영활동을 전개하는 곳이었으며, 200년의 긴 세월동안 조·일 교린관계를 배경으로 창건과 수리공사를 거듭 진행하며, 양국의 관계가 호전됨에 따라 공사의 내용이 증가하는 등의 17~18세기를 중심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국가적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그러므로 왜관을 연구할 때에는 어느 한 시기의 건축적 양식을 상정하기에 앞서 각 시기에 따른 건축내용의 변화상과 그 건축이 조영되고 관리되기까지의 전 과정(건축집행, 인력동원, 재원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초랑왜관의 창건공사와 수리공사를 고찰하고, 초랑 왜관에서 일어난 조·일 양국의 조영활동에 대한 교류를 건축생산적<sup>2)</sup> 측면에

1) 「倭館移建勝錄」 및 「邊例集要」에 표기된 '障子'는 한국에서는 '장지'로 일본에서는 '쇼오지'로 불린다. 기록에 따르면 대마도에서 제작하여 가져왔다고 하므로 이 부재가 쇼오지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선측 사료에 기록된 것이므로 조선의 입장에서 장지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된다.

2) 서치상은 "건축물을 당시의 사회적 생산물로서 파악하여,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각종 생산부문의 조직을 형성하는 요소

초점을 두어 고찰하고자 한다.

### 1-2 研究의 對象 및 展開方式

본 연구는 草梁倭館의 창건공사와 수리 및 증축 공사를 당대의 왜관 관련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한 문헌적 연구이다. 왜관은 현재 유구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건축내용의 고증 및 건축배경의 이해를 위해 문헌연구가 우선되어야 하겠다.

왜관과 관련된 1차 사료에는 「倭館移建騰錄」, 「倭館修理騰錄」, 「邊例集要」, 「增正交隣志」, 「通文館志」, 「春官志」 등이 있다. 이상의 사료 가운데 禮曹관할의 사료이자, 왜관의 창건과 수리에 관한 직접적인 사료가 되는 「倭館移建騰錄」과 「倭館修理騰錄」, 「邊例集要」 館宇條, 「春官志」를 중심으로 왜관공사의 내용을 밝히고, 일반적인 대일관계를 기록한 「增正交隣志」, 「通文館志」 등의 사료 가운데 왜관관련 기록을 참고하여 草梁倭館의 기지가 선정되는 1673년부터 왜관점령이 일어나는 1876년 사이에 왜관의 신축 및 수리공사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전개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건공사와 수리공사를 거친 초량왜관의 조영역사를 고찰하여 초량왜관의 건축내용과 변화상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공사관리국인 조선의 조영의지를 밝혀낸다. 둘째, 실질적인 행정주체와 공사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왜관공사에 소요된 역가와 물력의 지급 및 조달을 고찰하고, 왜관공사의 중요도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셋째, 공사행정 및 공사활동 전반에 대한 조·일 양국의 건축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감동역관의 집행활동과 공사인력의 조영활동을 통한 양국의 생산활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펴본다.

들, 즉 공사재원, 공사인력, 집행방식에 대한 성격규명과 변천을 고찰하는 것을 건축생산사적 고찰이라 하였고(徐致祥, “朝鮮王朝 顯宗寺刹의 造營에 관한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工學博士 學位論文, 1990) 김동욱은 “건축이라는 것이 한 시대의 문화산물이며 거기에는 사람의 담겨짐으로써 비로소 완성되는 실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건물의 외형 분석이 곧 건축사 연구의 완성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외형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집을 계획하고 지어냈는가 하는 생산적 측면의 고찰, 더 나아가 그 집을 짓고 거기 살았던 사람이 누구이고 그 사람은 어떤 일상을 벌여나갔는가를 밝히는 점이라 하였는데, (전환기 건축사학의 전망”, 한국건축역사학회 창립 10주년기념 학술발표대회, 한국건축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이러한 건축생산의 의미들은 공통적으로 건축이 성립되기 위한 배경, 계획하고 조영하는 건축의 전과정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 2. 草梁倭館의 創建工事

### 2-1 基址選定過程과 館基減定

草梁倭館의 창건은 기지를 선정하고, 축소하면 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내용이 각각 ‘基址選定’과 ‘館基減定’이라는 용어로 사료에 기재되어 있다. 기지선정이란 왜관의 기지로 거론되는 몇 가지 장소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것을 의미하고, 관기감정이란 단순히 기지의 면적을 축소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도록 축소한 기지의 경계를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지를 선정하는 문제는 豆毛浦倭館시절부터 계속 언급되어져왔는데, 이것이 1640년부터 시작된 倭館移建交涉이며 총 8회에 걸쳐 양국 사이에 논의가 계속되었다. 왜관의 기지선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은 1673년(현종 14년) 差倭平成승이 茶禮席上에서 對馬島主의 移館요구를 전하면서부터이다. 이때 差倭 및 正副官倭들은 熊川을 기지로 삼아 이관하고자 하였지만 東萊府는 統營과 가까운 熊川을 왜관기지로 삼는 것을 부적당하게 여겼다<sup>3)</sup>. 임란이후 국교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조정의 입장에서 일본은 여전히 견제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선의 강경한 대응도 곧 다른 기지를 선정한다면 이관이 가능할 수 있다는 회유책으로 전환되게 된다. 같은 해 4월에 현종은 差倭가 이전 대상지로서 東萊 근처의 非關防地를 요구한다면 혹시 허락할 수도 있다는 뜻을 전하게 하였다<sup>4)</sup>. 이러한 조선의 대응에 왜측 또한 熊川을 고집하지 않고 그 근처에다 설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청하였고, 협상의 과정을 보고 받은 비변사에서는 洛江以東의 지역이면 허락이 가능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sup>5)</sup>. 같은 해 8월에 일본측은 草梁을 3개의 이관 후보지(多大浦, 牧場, 草梁) 가운데 최선의 왜관기지로 여기고<sup>6)</sup>, 1675년 7월에는 조선정부의 이관허락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移館回謝 差倭를 파견함으로써<sup>7)</sup> 오랫동안 지연된 倭館移建 문제는 일단락 지어졌다.

3)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癸丑 3月.

4) 「顯宗改修實錄」, 卷26, 顯宗 14年, 4月, 辛丑.

5)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癸丑 4月.

6)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癸丑 9月.

7) 「顯宗改修實錄」, 卷27, 顯宗 15年, 2月, 甲寅.

이처럼 1673년(현종 14)에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같은 해 9월에 확정된 草梁倭館의 기지선정은 倭館移建交渉(1640년부터 시작된)에 대한 최선의 대안이었다. 이관을 하고자 하는 왜측의 요구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문호가 아닌 변두리에 倭館을 설치하여 외교문제를 해결하고 僭越 및 潛商행위와 같은 倭人作弊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조정은 왜관의 기지를 설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기지를 減定하는데 많은 주의를 기울였는데 1675년(숙종 원년)에 差倭 平成近이 왜관 배치를 위해 기지를 보려고 하자, 비변사는 이를 허락하면서도 이전에 平成畝이 立標한 터를 근거로 廣占하지 말 것을 명령한다<sup>8)</sup>.

관기감정은 두 번에 걸쳐 완료되었다. 처음에는 왜인들이 立標한 동서 500보, 남북 205보 가운데, 동서방향만 150보 줄이고, 남북방향은 背山臨海의 形止여서 그대로 두게 되었다. 이 때 草梁倭館의 규모는 豆毛浦倭館의 3배에 달하였다고 한다<sup>9)</sup>. 왜관의 기지는 후에 조금 더 줄어들어 관기감정을 완료한 때에는 동서 245보, 남북 205보의 규모<sup>10)</sup>가 되었다. 완공된 뒤의 넓이는 그보다 더 증가된 동서 279.5보, 남북 192보에 달했다<sup>11)</sup>. 이 면적은 약 11만 평에 달하며 그 후 조정이 당초에 의도한 대로 증감없이 왜관이 접수되던 1872년까지 200년간 존속되었다.

이처럼 왜관의 기지선정과 관기감정의 결정권은 모두 東萊府를 통한 조정에 있었으며 조선의 의지대로 운영되었던 것이다.

## 2-2 創建工事의 內容

草梁倭館의 창건공사는 1675년에 선창의 석축을 완료하면서부터 시작되어 1678년 4월에 낙성되기까지 약 3년에 걸쳐 진행되었다<sup>12)</sup>. 倭館에는 飛船 등의 왕래가 빈번하였으므로 선창을 수축하는 일은 倭館創建의 필수요건이었다. 창건당시 공사내용을 묘사한 '釜山和館竣工圖'(그림 1.)를 살펴보면

왜관의 外牆(둘레 1273보, 높이 6자)<sup>13)</sup>을 경계로 그 內部에는 왜관의 주요건물인 西館 三大廳과 東館 三大廳이 들어섰으며, (倭側私造家舍 또한 들어 서게 된다.) 外部에는 왜관의 관리 및 왜관관련 행사를 위한 조선의 부속건물이 들어선 것을 알 수 있다. 이 外牆에는 僭越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關防을 두었다. 창건당시에는 伏兵幕을 3곳에 설치하여 관내왜인의 동정을 살피게 하였으며 北門을 두어 茶禮 때 宴享廳을 왕래하도록 하였다<sup>14)</sup>. '釜山和館竣工圖'에는 관내시신을 옮기던 不淨門(水門)도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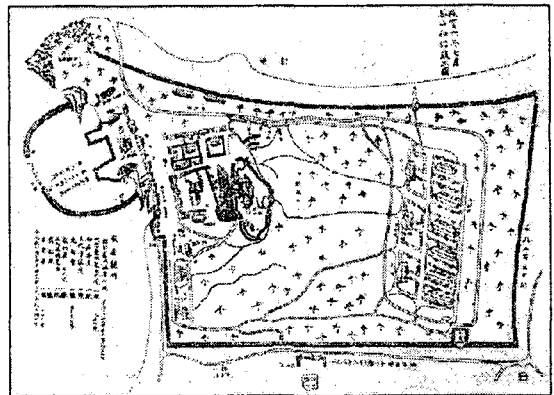


그림 1. 釜山和館竣工圖  
(출전: 高橋章之助, 「宗家と朝鮮」)

즉 창건당시에 지어진 건물에는 조선이 조영한 왜관주요건물(東館 三大廳과 西館 三大廳)과 일본이 조영한 倭側私造家舍<sup>15)</sup>, 그리고 조선이 조영한 부속 건물인 宴享廳(公須間을 포함)이 있었다. 關防으로는 조선이 조영한 守門과 北門이 있으며, 伏兵幕 3處 또한 수보시 각 진에서 나누어 맡은 것으로 조선이 조영한 것이다<sup>16)</sup>. 外牆은 왜인이 스스로 지었다<sup>17)</sup>. 西館의 中大廳 가운데 일부를 왜인이 덧 지은 것과 수장품인 장지를 대마도에서 제작한 것을 제외하면 왜관 주요 건물은 조선이 조영한 것이다<sup>18)</sup>. 왜관창건 당시 사료에 기록된 건물의 규모는 (표 1.)과 같다. 이는 조선이 조영한 건물만 기록한 것이며, 倭側私造家舍는 일본이

8)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乙卯 3月.

9)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乙卯 4月.

10) 「倭館移建曆錄」, 丙辰 正月 19日,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丙辰 正月.

11) 완공 후의 면적에 대해서는 사료마다 다르게 기재되어 있지만 본고에서는 한국사료를 근거로 하여 8자를 1보로 계산한 것을 따른 것이다.

12)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乙卯, 「倭館移建曆錄」, 乙卯 閏5月 16日.

13) 「通文館志」와 「增正交隣志」에는 6자를 1보로 계산하여 1,273보로 「邊例集要」에는 8자를 1칸으로 계산하여 796칸으로 기록되어 있다.

14)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戊午 閏 3月

15)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丁巳 12月.

16) 「增正交隣志」, 卷3 (館宇條), 「通文館志」, 交隣.

표 1. 창건당시의 조영규모  
(출전:『邊例集要』, 권11 館宇條, 戊午, 윤 3월.)

구분	건물명	조영규모
東館	館守家	館守家(길이 10칸 4자, 너비 4칸 5척), 中門(3칸), 半間二柱門(1庫), 曲牆(75칸)
	開市大廳	開市大廳(길이 12칸 3자, 너비 3칸 2자, 습 39칸)
	裁判家	裁判家(길이 9칸 7자, 너비 3칸 2자, 습 31칸), 中門(1칸), 半間二柱門(1庫), 曲牆(68칸)
西館	東大廳	大廳(길이 5칸 3자 5치, 너비 3칸 5자 5치), 東軒(길이 8칸 2자 5치, 너비 4칸 2자), 西軒(길이 6칸 6자 5치, 너비 4칸 2자), 東行廊(길이 17칸 5자, 너비 3칸 1자 5치), 西行廊(길이 17칸 5자, 너비 3칸 1자 5치), 半間二柱門(15庫), 曲牆(216칸 6자)
	中大廳	大廳, 東西軒, 東西行廊, 曲牆(間數는 동관과 같음.)
	西大廳	大廳, 東西軒, 東西行廊, 曲牆(間數는 동관과 같음.)
기타	宴享廳	大廳(32칸), 公須間, 酒房, 沙器庫(습 28칸), 大門(3칸), 中門(1칸 반), 半間二柱門(1庫), 牆(41칸3자)
	關防	守門(5칸), 北門(1칸), 伏兵幕 3곳(습 6칸), 外牆(796칸)
總合	朝日造營家舍 796칸 반, 牆垣 안팎 1632칸 5자	

조영한 건물이므로 신관의 공사를 마친 후에 조선 측 조영건물과 함께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1677년(丁巳) 12월의 기록<sup>19)</sup>에서 倭인들이 사사로이 지은 家舍에 들어갈 재목이 부족하여 私家の 재목으로 入給하라고 회답한 기록을 통해 倭側私造家舍 또한 이 시기에 지어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1678년(草梁倭館이 낙성되던 延寶 6년 7월)에 그려진 '釜山和館竣工圖'에는 대마도에서 과전되어 외교문서를 조사하는 승려를 위한 東向寺, 무역을 관리하는 직제인 代官의 집, 鷹房, 什物庫, 封進庫 등이 그려져 있어 당시 이러한 倭側私造家舍가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倭館移建謄錄」에 따르면 1678년 4월 14일에 舊代官倭 5명, 從倭 25명, 都禁徒倭 3명이 먼저 신관에 입주하고, 그 보다 뒤에 館守倭 이하 大小倭 454명이 신관에 입주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都禁徒倭家和 舊代官家가 代官家和 함께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창건당시의 왜관(1678년)을 묘사한 '釜山和館竣工圖'(그림 1.)와 왜관의 규모가 제대로 갖추어진 정조 시대(1783년)의 왜관을 묘사한 卞璞의 '倭館圖'<sup>20)</sup>(현 국

립진주박물관 소장, (그림 2.))를 비교해 보면<sup>21)</sup> 창건당시 倭側私造家舍는 代官家 중심으로 구성되어 1783년의 왜관을 묘사한 '倭館圖'에서 볼 수 있는 造泡家, 簾席家, 多多味家<sup>22)</sup>, 染家, 餅家, 糖家 등은 아직 조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창건당시의 초랑왜관은 卞璞의 '倭館圖'나 「增正交隣志」를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倭館建物에 비해 주요건물만 조영되었던 것이다.

草梁倭館은 龍頭山을 가운데 두고 東館과 西館으로 구성되었다. 東館에는 왜관을 총괄하는 館守의 숙소 겸 집무소인 館守倭家가 있고, 그 옆에 양국의 상인들이 무역을 하는 장소인 開市大廳과

17) 「通文館志」, 交隣,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丙辰 7월.

18)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丙辰 9월.

19)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丁巳 12월,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戊午 閏3월.

20) 卞璞의 '倭館圖'에는 1783년의 왜관이 묘사되어 있다. 이 당시 왜관은 25년 사이에 동서 왜관을 모두 수리하도록 한 대감동이 4차례나 완료된 때(왜관 존속기간 동안의 대감동은 총 5차례이다.)이므로 이 그림에는 가장 번성하고 짜임새를 갖춘 시기의 왜관이 묘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1) 왜관을 묘사한 그림에는 1678년의 왜관상황을 묘사한 釜山和館竣工圖(「宗家と朝鮮」), 卞璞의 倭館圖(국립진주박물관 소장), 草梁倭館 古繪圖(國史編纂委員會), 宗家文庫 소장의 草梁倭館圖, 個人藏인 草梁倭館圖屏風외에도 다수가 있으나 비교적 배치상황과 전체적인 경계가 뚜렷하고 정확한 연대를 파악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각각 형성기와 완성기의 왜관을 묘사하

19)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丁巳 12월,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戊午 閏3월.

20) 卞璞의 '倭館圖'에는 1783년의 왜관이 묘사되어 있다. 이 당시 왜관은 25년 사이에 동서 왜관을 모두 수리하도록 한 대



그림 2. 倭館圖

(출전: 열화당편집실, 「韓日交流二千年」, 悅話堂, 1984 · 소장: 국립진주박물관)

裁判官(외교교섭관)의 숙소인 裁判倭家가 있었는데, 西館에는 대마도에서 파견된 사절이 체재하는 숙소 3동(西館 三大廳)이 나란히 있어서 왜관본래의 기능인 客館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西館 가운데 東大廳은 第 1船正官이, 中大廳은 參判使<sup>23)</sup>가, 西大廳은 副特正官이 머무는 곳이었다<sup>24)</sup>.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절로서의 역할을 마치면 곧바로 귀국하기 때문에 동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체재기간이 짧았다.

동관과 서관에 대한 건물명은 각 사료마다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특히 「邊例集要」 館宇條에 기록된 왜관 건물명은 일반적으로 왜관을 일컫는 건물명과 차이를 보이는데 여기에 기록된 東館, 西

館, 中館은 다른 사료<sup>25)</sup>에서 일컫는 西館 三大廳의 東大廳, 西大廳, 中大廳이며, 館守家, 橋成陳家, 開市廳은 일반적으로 東館 三大廳으로 불리는 館守家, 裁判家, 開市大廳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건물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通文館志」에 ‘西有三館以處其送使及差倭其曰東館...其曰中館...其曰西館’이라고 하여 「邊例集要」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같은 東館, 中館, 西館이 西館 三大廳임을 알 수 있게 한다.

### 2-3 役價와 物力의 調達

倭役價는 상기한 대로 조선에서 결정하여 조달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자연히 왜목수와 왜역부의 名數를 조정하는 권한도 조선이 가지고 있었다. 비록 왜측의 요구대로 150명의 왜목수를 허락하였지만 이 또한 인원을 늘려 공사를 지연시키지 않겠다는 조선의 의지가 포함된 것이었다.

조선은 처음 예산보다 증원된 150명의 역가를 합리적으로 지급할 계책을 찾고 있었다. 그리하여 70명의 왜목수에게는 給米價를 합친 쌀을 6되씩 지급하였고, 하루에 쌀 2되 외에 다른 價의 지급이 없던 80명의 소목수에게는 價米 2되를 더 지급하였다<sup>26)</sup>. 12월에는 大木手에게 1646년의 전례(豆毛浦 倭館시대의 전례)를 따라 매일 手功銀을 1전 5푼씩 지급하였고, 小木手에게 매일 2되씩 價米 100섬을 마련해 주었다<sup>27)</sup>. 이상의 과정을 통해 결정된 역가지급의 규칙은 1678년(戊午) 3월에 발표된다.

왜목수 150명 가운데 대목수 70명은 매일 각자 요미(料米) 3되, 찬가미(價米) 2되씩을 셈하여 지급하는 일. 手功銀(품삯) 1전 5푼씩을 셈하여 지급함이 정당하다고 하였고, 소목수 80명은 매일 각자에게 요미(料米) 3되, 찬가미(價米) 2되씩을 셈하여 주는 일. 도합 4,776섬 이온바, 그 중 흑시, 선후(先後)에 나온 자, 또한 군역에 이바지한 일이 있으나 병에 걸리는 일로 인해 공사하지 않은 날이 있어 이는 원래 숫자(공사일수)에서 수를 덜어냄이 마땅한 것 같은 일.<sup>28)</sup>

25) 「增正交隣志」, 券3 (館宇條).

26)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丁巳 9月.

27)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丁巳 12月.

28) 倭木手一百五十名內 大木手七十名 每名每日料米三升 價價米二升式計給事 手功銀一錢五分式 計給停當爲白遺 小木手八十名 每名每日料米三升 價價米二升式計給事都合四千七百七十六石是白乎所 其中或有先後出來者 亦有立役 而有因病故不役之日 此則似

23) 大差倭라고 하며 우리 나라의 參判에게 오는 差倭를 말한다. 洪性德, “十七世紀 別差倭의 渡來와 朝日關係”, 「全北史學」 제15집, 1992, pp.116~112.

24) 「釜山府史原稿」, 倭館篇, 民族文化

표 2. 창건당시의 役價지급내용

(출전: 『邊例集要』, 권11, 館宇條, 戊午, 윤 3월)

목수명	공사참여기간	급가내용	총 역가
大木手70명	1676,5,13-1678,3,8 (674일 반)	手功銀 매일매명 1전 5푼 (합 7,082냥 2전 5푼) 料饌米 매일매명 6되 (합 1,889섬 9말)	銀, 7,082냥 2전 5푼 쌀, 4428섬 4말
小木手70명	1675,윤5,27-1676,4,29 (327일)	料饌米 매명매일 5되 (합 763섬)	
小木手80명	1676,5,1-1678,윤3,8, 오전 (686일 반)	料饌米 매일매명 5되 (합1,830섬 10말)	

또한, 같은 해 윤 3월 신관의 공사를 마친 후 지급한 역가의 기록<sup>29)</sup>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조정이 大木手(匠人)와 小木手(役夫)를 구분하여 일한 대가만큼 역가를 지급한 사실과 목수 가운데 全日不役, 半日不役, 朝前不役한 목수를 각각 나누어 원래의 역가 가운데서 計減한 사실을 알 수 있다..

『增正交隣志』에 의하면 이렇게 지급된 역가의 총합이 쌀 9,000여 섬과 은 6,000냥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는 1678년 윤 3월에 『邊例集要』에 기록된 쌀의 수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나 동사료의 같은 해 7월에 船倉工事を 완전히 마친 후 小木手들의 역가에 쌀 58섬 10말을 더 하였다<sup>30)</sup>하니 이를 각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환산하면 9,000여 섬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양의 手功價銀과 料米의 조달이 한 관아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 목수의 手功價銀의 경우 6,223냥 5푼 가운데 1,000냥은 東萊府의 稅銀에서 비롯된 것<sup>31)</sup>이었고, 나머지 5,000냥은 역관들이 왜관의 被執物貨중에서 획급한 것이었다<sup>32)</sup>. 料米의 경우는 상기한 대로 경상도 稅米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常平廳이나 賑恤廳에서 支給하도록 하였다<sup>33)</sup>. 또한 왜학역관들은 신축당시 왜목수의 工錢으로 지급할 비용이 부족해지자 영남 民結 5000냥을 빌려 이것으로 고리대를 하여 工錢을 마련하였다<sup>34)</sup>. 왜관창건 공사 때 조선목수와 役夫의 급가

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만 1675년에 船倉을 새로 짓는데, 僧軍 400명이 19일 중 赴役하고 各浦防軍 100여명이 17일 중 始役하였다<sup>35)</sup>고 한다. 선창공사는 館基減定의 문제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8월 20일에 畢役하였으며, 이 공사는 하루 부역하는데 僧軍 1,000명과 防軍 800명의 노역이 필요했다고 하니<sup>36)</sup> 쉬운 공사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新館開基때 부역인원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1676년 7월의 기록에 따르면 부역군이 31,287명이거나 되며, 木手, 助役, 炊飯僧人을 모두 합한 수가 2,213명이었다고 한다<sup>37)</sup>. 이는 倭館工事왜관창건공사에 의 규모로 보아 연인원으로 생각되어지는 숫자이다. 1678년 윤 3월의 기록에 따르면 신관공사를 마친 후 각포 역군을 放送하였는데, 우리나라 목수 20명을 客舍移建工事に 차출한 후, 그 나머지만 放送하였다고 한다<sup>38)</sup>. 신관공사에 동원된 우리나라 목수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일부가 객사공사에 동원된 사실을 통해, 그들이 東萊府 관영공사에 종사하던 工匠의 신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동원된 조선공장의 役價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앞서 밝힌 대로 이들이 관영공사에 종사한 공장임을 고려할 때 같은 시기에 공사를 마친 南別殿 중건공사의 기록과 비교하여 왜목수에게 지급된 역가의 정도를 살펴 볼 수 있다. 『南別殿重建廳儀軌』에는,

當有減省於元數之事。『邊例集要』, 卷11 (館宇條), 戊午 3月。

29)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戊午 閏3月。

30)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戊午年 7月。

31)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戊午 正月。

32)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戊午7月。

33)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戊午 3月。

34) 『備邊司廳錄』, 肅宗 4年, 8月 15日。

장인(匠人)은 배 2필 쌀 9말, 육조역(肉助役)은 배 1필 쌀 6말, 모조역(募助役) 및 모군(募軍), 인거군(引鋸軍),

35)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乙卯 5月。

36) 『倭館移建階錄』, 乙卯 閏5月16日, 『邊例集要』, 卷11(館宇條), 乙卯 6月。

37)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丙辰 7月。

38)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戊午 閏 3月。

화정(火丁), 복직(卜直)들은 각 포 2필 쌀 9말<sup>39)</sup>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1677년 왜관창건 때에 왜목수 가운데 大木手 70명 각자에게 매일 6 되씩, 小木手 80명 각자에게 매일 4되씩 지급된 역가(한 달로 계산하면, 대목수는 18말, 소목수는 12말)와 비교하면, 조정이 조선목수에게 지급하는 料米보다 훨씬 많은 양의 요미를 왜목수에게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게다가 1677년 12월에는 왜목수 중에 대목수 각자에게 手功銀 1전 5푼을 매일 지급하기도 하는 후한 대접을 해주었다. 특히 조정은 왜목수를 대목수와 소목수로 구분하여 대목수에게 조금 더 높은 역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장인의 급료보다 모군의 급료가 더 높은 조선의 공사관례<sup>40)</sup>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시 이 공사가 동래부에서 꽤 비중있는 공사였다는 사실과 우수한 日本匠人이 동원된 공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즉, 창건공사 당시 役價支給은 조정에서 주관하였으며 手功價銀의 대부분은 왜관 가운데 被執物貨로써 조달하였고 나머지는 本府(東萊府)의 稅銀으로 충당하였다. 料米의 대부분은 慶尙道 稅米로써 조달하였고 일부는 다른 관아의 儲置米를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역가조달처는 倭館中, 慶尙道, 東萊府, 賑恤廳과 常平廳등의 여러 官衙였던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급된 倭木手의 役價는 당시 조선목수에게 지급되던 역가에 비해 높은 것이었다.

物力 또한 모두 조정에서 지급하였으며, 지급이 어려운 물력인 경우에는 값을 치르거나 구하기 쉬운 물력으로써 대신 지급해주었다. 처음에 監董倭는 일본양식을 이루기 위해 신관의 수장품인 장지를 대마도 가운데에서 만들어 올 것이므로 들어갈 재목을 셈하여 조선에서 재목으로 값을 것, 초석은 絶影島에서 취용할 것, 왜인의 사조가사에 덮을 地瓦는 대마도에서 구워서 옮기면 폐단이 있으니, 金海에서 왜인이 지불하여 얻도록 할 것 등의 세 가지를 제안하였고, 조정은 그렇게 하도록 허

락한다. 특히 金海의 기와굽는 곳에서 왜인들이 기와를 사도록 하는 것은 원래 금지하는 것이었다<sup>41)</sup>. 이는 같은 시기에 조영된 왜관관련 公廩에 舊材가 이용된 사실과 대조된다. 이처럼 조정이 조선公廩의 所入物力을 절약하면서, 왜관의 물력을 지급하려는 노력은 평화적 외교관계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위의 내용 외에 屯田劃給의 문제 또한 제시되었다. 草梁倭館의 創建工事를 마치고 朝廷은 倭館주위에 閭閻을 두기 위해 일종의 특혜를 제시하고 있었다. 倭館移建후에 閭閻이 移接하도록 屯田을 허락하고 정확히 측량한 후 세금을 줄여 많은 수의 民居가 생겨나도록 한 것이다<sup>42)</sup>. 뿐만 아니라 新館을 만들면서 그 속에 太僕屯田이 포함되자 太僕侍에 舊館의 땅을 주어 값은 등 倭館과 관련된 土地의 정리를 아울러 행하였다.

이상의 사실로 보아 창건당시 목수의 관리, 물력 및 역가지급, 왜관 주변 행정 정비는 모두 조선의 규율에 따라 이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4 訓導, 別差의 活動.

왜관공사는 왜관 소유권을 가진 조정의 주체로 집행되어졌다. 조정은 일정한 영조절차를 통해서 왜측의 요구를 보고 받았으며, 같은 절차를 통해 差倭에게 허, 불허를 전령하였다. 이러한 영조절차는 일반적인 왜관의 행정 절차와 같은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인 왜관의 행정은 差倭를 직접 대면하는 倭學譯官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그들은 조정의 명령과 왜측의 요구사이에서 현안을 타결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倭館移建曆錄」에 나타난 창건공사 당시의 문서 유통을 살펴보면 공사집행절차와 訓導, 別差의 활동을 알 수 있는데, 訓·別의 手本이 釜山鎭僉使를 거친 후 東萊府使의 장계를 통해 慶尙監司에게 보고되어 조정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急報인 경우에 東萊府使는 慶尙監司를 거치지 않고 비변사에 馳啓할 수 있었다. 왜인이 요구하는 신창공사는 東萊府를 거쳐 조정의 윤허를 얻어야만 시행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訓·別의 활발한 활동이 왜관조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즉, 조정의 권한을 받은 동래부가 공사의

39) 匠人 布二匹 米九斗 肉助役 布一匹 米六斗 募助役及募軍引鎧軍 火丁 卜直等 各布二匹 米九斗 「南別殿重建廳儀軌」, 丁巳 7月12日

40) 모군과는 달리 전문기술자인 장인은 관이 강제로 부역으로 동원하였기 때문에 장인의 급료가 모군보다 오히려 낮았던 것이다. 金東旭, 「韓國建築工匠史研究」, 技文堂, 1993, pp.166~173

41)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丙辰 7月.

42)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戊午 5月.

집행을 맡았으나 직접 일본의 요구를 개유하고 조정의 訓導와 別差의 활동이 실질적인 공사집행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물론 訓導와 別差가 왜관공사의 기술자는 아니었지만 이들의 독특한 직제를 살펴보면 監董官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공사에 관하여 문의한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조선시대의 역관은 세습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일찍이 倭學生徒로 왜관에 파견되어 오랫동안 실무를 익혀야만 오를 수 있는 직위였으므로 왜관관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였던 것이다.

왜관창건당시 공사를 감독한 사람은 金謹行, 朴再興, 洪禹載, 朴有年 등이었다<sup>43)</sup>. 김근행은 首譯, 朴再興은 訓導였으며, 이들은 모두 역관 출신이었다. 이처럼 差倭 平成近등의 의견에 현안을 내릴 수 있는 많은 조선의 역관이 왜관감동에 투입되었는데 이는 왜관창건 당시 역관들의 활발한 감동활동을 보여주는 일례가 된다.

이처럼 왜관창건공사의 집행자를 訓導와 別差라고 한다면 공사주체는 工匠과 役夫였다. 창건당시 왜관공사에는 대목수(匠人70명)와 소목수(役夫80명)로 구성된 왜목수 150명이 투입되었다. 실제로 왜인들은 일본양식을 고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일례가 장지의 문제였다. 그들은 수장에 불과한 장지를 대마도에서 따로 제작하여 가져왔던 것이다<sup>44)</sup>. 또한 창건 초기부터 왜목수 150명을 파견하는 이유가 일본집이 조선집과 다르기 때문인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館守家を 수리할 때에도 계속 왜목수가 활동한 사실을 상기해보면 이 건물은 倭工匠이 중심이 되어 조영된 건물로 보인다. 물론 이 공사에는 많은 조선의 공사인력이 함께 투입되었다. 왜관공사가 다 끝난 후 조선의 목수를 풀어주고, 그 중 20명을 선출하여 客舍를 이건 하는 곳에 보내었다<sup>45)</sup>는 기록은 왜관공사에 동래부 관아를 조영하는 조선목수가 투입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또 객사건축은 화려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조선의 고급기술인력이 왜관 조영에 투입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들 목수 외에도 조선의 공사인력에는 僧軍과 各浦防軍이 있

었다<sup>46)</sup>. 1675년에 왜목수의 수를 결정하는 문제가 생기자 조정은 왜관공사에 조선의 목수가 함께 도와 일하도록 제안한다<sup>47)</sup>. 물론 이 제안은 왜측의 끈질긴 요구로 반영되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나 선창공사를 할 때 監董差倭가 조선역부와 倭役夫가 한 곳에 섞여 일하는 폐단을 막고자 掛榜하여 타이르자고 의견을 제안하였다고 하니 이는 분명 왜인과 조선인이 동시에 왜관공사를 수행하였던 사실을 얘기해주는 부분이다<sup>48)</sup>. 실제로 假家와 船倉을 지을 때 各浦防軍 100명과 僧軍 400명이 동원되었고<sup>49)</sup>, 1677년(숙종 3년)에 경상도 관찰사 金德遠이 왜관을 새로 짓는 일에는 갖가지 역군이 50여만 명이나 된다고 하며, 호남 각 고을 중에 영남과 거리가 멀지 않은 곳의 승군을 갈라주어 부여하게 하자는 장계를 올리자, 備局이 각 鎭浦의 船防軍을 매달 2백 명씩 차출하여 赴役하도록 하였다<sup>50)</sup>. 또한 開基공사때 동원된 부여군 31,287명과 木手, 助役, 炊飯僧人을 모두 합한 2,230명의 조선측 인원이 동원되었다고 한다<sup>51)</sup>. 이상의 기록을 통해 많은 수의 조선인력이 왜관공사에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은 일본양식을 이루는 문제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한도에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sup>52)</sup>. 다만 모든 왜관조영의 일은 조선이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양식의 문제 또한 조선의 감독 하에 타결되었다. 일본은 서관 중대청 좌우랑의 장지와 倭側私造家舍등을 담당하였는데 실제 조영하는데 있어 왜목수와 조선목수의 활동범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倭人作弊謄錄」을 보면 紛伊라는 여자가 왜관에 잠입하여 二代官倭의 누각 밑에 굴을 파서 숨어 지냈다고 하는 기록<sup>53)</sup>이 있

46) 여기에는 경상도 각읍의 승군과 전라도 일부지역의 승군이 포함되고 있었다. 「肅宗實錄」, 卷6, 肅宗 3年 2月 己未.

47) 「倭館移建謄錄」, 乙卯, 4月 17日.

48) 「倭館移建謄錄」, 乙卯, 閏 5月 초5日.

49)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乙卯 5月, 「倭館移建謄錄」, 乙卯 閏 5月 16日.

50) 경상도 각읍의 승군과 전라도 일부지역의 승군, 그리고 경상도 각 진포의 수군도 여기에 동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肅宗實錄」, 卷6, 肅宗 3年 2月, 己未.

51) 이 인원수는 연인원으로 사료된다.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丙辰, 7月.

52) 조정은 장지의 제작을 대마도에서 하도록 허락하고 목재로써 대가를 치른다.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丙辰 7月.

53) 孫承詰, 「倭人作弊謄錄」을 통하여 본 倭館, 「港都釜山」, 建

43) 「通文館志」, 卷5, 「增正交隣志」, 卷3 (館宇條).

44)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丙辰 7月.

45)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戊午 閏 3月.



으니 이를 통해 倭側私造家舍인 代官家는 왜인이 조성하였으며, 누각의 형태를 한 일본양식의 건축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館守家의 경우 수리할 때에도 계속 왜목수가 활동한 사실을 상기해보면 이 건물은 倭工匠이 중심이 되어 조영된 건물로 보인다. 앞(2-3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우수한 일본장인이 왜관공사에 투입되었다면 조정은 왜관공사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왜인이 일본양식을 이루는데 협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이 공사비를 지급하고 공사를 집행하였기 때문에 일본 건축양식의 결정권은 조선에 의지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조정이 허락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본양식의 건축은 조영될 수 없었다.

### 3. 間架増築과 修理工事

#### 3-1 修理工事 過程

조정은 왜관수리에 대한 일정한 규칙을 정했다. 왜관은 바닷가에 있어 쉽게 무너지므로 25년 사이에 東·西館을 모두 수리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大監董이라 하고, 화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 퇴락한 경우 수리하는 것을 小監董이라고 하였다<sup>54</sup>).

草梁倭館의 수리공사는 1684년부터 1864년까지 大監董과 小監董을 합하여 모두 21건이 시행되었다. 이 외에도 6회에 걸쳐 西館과 東館의 수리가 행해졌다. 그 가운데 大監董이 5회, 小監董이 16회에 달하였는데, 大監董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1696년, 1721년, 1745년, 1772년, 1801년으로 수리요청기간이 각각 25년, 24년, 27년, 29년으로 나타난다<sup>55</sup>).

각 수리는 조정이 책임을 맡아 시행하였으며 大監董의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왜측의 수리요구로부터 조정이 허가를 내리는 기간을 살펴보면 처음 시행된 감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리요청을 받은 그 해에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大監董이 있을 때 年例送使를 중지하여 조정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며<sup>56</sup>), 조정은 또한 처음 시

행된 大監董을 전례로 삼아 그 후의 大監董에도 연례송사의 증지를 일본에 요청하였다<sup>57</sup>). 조정은 다섯 건의 大監董 가운데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年例送使의 증지를 언급하였으며, 이는 전례가 되었다<sup>58</sup>).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大監董의 경우에는 양국 모두 약정한 사안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였고 외교적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고자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大監董은 1801년 大監董이후로 시행되지 않게 된다. 1802년에서 1804년에 걸친 東·西 倭館수리를 하고 나서 1809년부터 조정은 大監董의 연한을 40년으로 할 것을 일본측에 요구하여 관철시켰다. 그리하여 1813년부터 1864년까지 약 50여 년 동안 8차례에 걸쳐 왜관수리가 시행되었다. 이렇듯 1813년 이후의 大監董은 왜관 전체를 수리하지 않고 몇몇 건물을 돌아가며 수리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수리방식의 변화는 당시 조·일 외교 관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19세기가 되면서 상반된 대외의식과 易地通信<sup>59</sup>)에 의해 교린체제가 변질되어가고 이에 따라 왜관에서 이루어지는 조·일 무역도 쇠퇴하였다. 또한 전국에 걸쳐서 기근이 발생하고 있어서 백성들의 생활이 많은 곤란을 당하고 있던 처지였다. 따라서 조정이 무리하게 왜관수리를 단행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小監董은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뉘는데 일정한 햇수가 지나 수리하는 경우와 화재로 인해 수리하는 경우가 있었다. 조정은 소감동 또한 대감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수리를 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왜관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조금 달랐다. 1701년에 작성된 倭館看儉節目<sup>60</sup>)에 따르면 왜인의 偷毀處는 조정이 물력을 지급함이 부당하다고 거론하고 있다. 조정의 이러한 견해는 수리를 임하는 태도에도 잘 드러나게 되는데 실제로 발생한 수리요구가 있는 해로부터 평균 4, 5년

57)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壬寅 12月.

58)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癸巳 4月.

59) 원래 信使行은 에도를 방문하고 도쿠가와 장군을 직접 만나서 국서를 교환하였으나 신미통신사는 그 장소를 에도가 아닌 쓰시마로 바꾸었는데 이를 '易地通信'이라 일컫는다. 孫承喆, 「朝鮮時代 韓日關係史研究」, 「지성의 샘」, 1994, p.265

60) 辛巳年 12節目 가운데 5항의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倭人偷毀處 則決不當自我給價 故修理所入木物成冊中退材有無 既已區別是白置無退材處段 不當論價之意 今方嚴飭 而必如是而後庶防日後偷毀之弊是白齊',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辛巳 7月.

10호, 1993년

54) 「增正交隣志」, 卷3 (監董條).

55) 張舜順은 大監董을 5회로 설정한 근거로 25년마다 왜관 건물을 대수선하였다는 「增正交隣志」의 기록과 수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들고 있다. 張舜順, 「朝鮮後期 草梁倭館의 修理實態」, 제46회 한일관계사학회 월례발표회 1998년 6월 13일

56) 「增正交隣志」, 卷1 (年例送使停止條)

이 흐른 후에야 허가를 내려주는 사실은 상기한 조정의 입장을 잘 대변해준다. 뿐만 아니라 「春官志」에는 관 수리에 대해서 大監董과 小監董을 함께 수록하고, 따로 「附失火改造」라는 항목을 두어 실화로 인한 수리를 별도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조정이 실화된 館宇를 일반적인 監董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조정은 館宇수리의 책임을 맡고 있었으나 그 책임이 모든 館宇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왜관 창건 때 조정이 조영한 건물에 한하여 수리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이로써 왜관수리의 책임한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었다.

### 3-2 修理工事의 內容

오랜 기간동안 여러 차례 감동을 거친 왜관은 창건당시의 모습에서 많이 변형되어졌다. 왜관수리공사는 크게 규모를 그대로 지키는 수리와 增築이 포함된 중수가 있었는데, 왜관관련 史料에는 修理, 改建, 重修 등의 용어가 적합한 개념 없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가 쓰인 상황을 잘 분석해 보면 크게 修理와 重修의 개념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修理'라는 용어는 왜관 창건당시와 같은 규모를 지키며 더 이상의 확장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sup>61)</sup>가 강할 때 사용되었다. 改建또한 修理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에 반해 '重修'라는 용어는 건물의 규모가 확장되는 間架增築을 의미하거나 役事가 큰 경우<sup>62)</sup>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료에서는 또 다시 이 양자를 묶은 하나의 상위개념으로서 修理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므로 본고에서도 수리연혁 가운데에서 修理와 重修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수리초기에는 대규모의 間架增築은 없었고, 초창 당시의 건물규모를 유지하려고 했다. 1690년에 공사를 마친 館守倭家の 수리가 대표적인 예로 수리 전 間架의 규모를 그대로 지켰다<sup>63)</sup>. 1715년에 공사를 마친 西館 東大廳 西行廊의 수리 또한 약

1칸 정도가 증축된 것으로 거의 수리 전의 間架를 지킨 것이다<sup>64)</sup>.

그러나 1724년을 기점으로 왜관은 적지 않은 규모로 증축되기 시작한다. 西館 三大廳 五行廊의 중수 당시 間架의 수는 941칸으로 기록되고 있다<sup>65)</sup>. 왜관창건 때의 기록을 따르면 曲牆을 제외한 三大廳 六行廊의 건물규모는 약 594칸이다. 그러므로 수리공사에 담장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볼 때 6행랑 가운데 하나의 행랑을 제외한 三大廳 五行廊을 중수한 후의 間架가 941칸에 이른다고 하니 많은 수의 間架增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실은 이후 1787년 西館 東大廳 西行廊을 85칸으로 중수하였다는 기록<sup>66)</sup>이 있어 더욱 명확해지는데, 그 이유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1715년에 수리공사를 마칠 때 西行廊의 칸수가 56칸이었음을 상기하면 행랑 1동이 29칸이나 증축되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왜관의 주요건물은 모두 증축되었다. 이는 17~18세기에 조·일간의 활발한 무역활동이 전개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조선에 올 다수의 倭使들을 위한 거주처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조정은 먼저 倭使들이 머무는 西館을 증축하고 뒤이어 東館을 증축하였다. 1749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751년에 공사를 마친 東·西館 三大廳 五行廊의 중수를 살펴보면 東館은 館守家 73칸과 館守家에 부속된 大門 18칸, 中門 2칸을 합한 93칸, 裁判家 48칸과 그에 부속된 大門 2칸, 中門 1칸을 합한 51칸, 그리고 開市大廳 60칸이 증축되었고<sup>67)</sup>, 西館은 이전에 한번 증축한 間數인 941칸을 그대로 지켜 중수하였다. 1797년에는 西館의 東大廳 東行廊이 85칸으로 증축되었다<sup>68)</sup>. 이는 1751년에 중수된 三大廳 五行廊에서 제외된 행랑이 뒤에 증축된 것으로 판단된다<sup>69)</sup>. 그 이후(순조 25년 이후)

61) 이러한 경우는 화재로 인한 건물을 복구하는 경우(1960년 관수왜가 화재, 1715년 서관동대청 서행랑 화재등이 이러한 경우이다.)와 원래의 규모를 지켜주는 범위 내에서의 수리를 하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62) 1728년에 공사를 마친 東館 三大廳 重修에서는 毀傷한 곳이 많아 조정 뿐 아니라 각 鎭浦에서 修補를 맡아야 할 정도였다. 「倭館修理曆錄」, 乙巳, 9월 10日.

63) 「倭館移建曆錄」, 庚辰 6月 6日.

64) 倭館創建당시 東大廳 西行廊의 규모는 長 17間 5尺 廣 3間 1尺 5寸으로 약 55間 1尺가량이 되는데, 올미년 기록에 따르면 長 141尺 廣 25尺 1寸으로 약 56間 11尺의 규모라 한다. 東大廳 東行廊을 燒燼하여 보고한 기록에 따르면 東行廊 또한 56間이었음을 알 수 있다.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65)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甲辰 12月, 「倭館移建曆錄」에는 941칸으로 기록하고 있다.

66)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丁未 3月.

67)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庚午年 12月.

68)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丁巳 6月.

69) 中大廳은 西大廳과 東大廳이 85칸인 것과 달리 80칸이었음을 알 수 있다. 「邊例集要」, 館宇條에 따르면, 1822년에 중대청을 燒燼한 사실을 보고하는 기록 가운데, 그 칸수가 80칸임을

의 증축 여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현존하는 사료가 없으므로 알 수 없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조·일간의 무역활동이 점차 쇠퇴한 역사적 사실을 고려하면 큰 증축은 없었다고 생각된다.

倭側私造家舍이므로 조선측 사료에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釜山和館竣工圖'와 '倭館圖'를 비교해보면 代官家의 규모도 증축된 것으로 판단된다<sup>70)</sup>. '釜山和館竣工圖'에서는 일렬로 배치된 代官家가 '倭館圖'에서는 'ㄱ'자 형태의 칸수가 증가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상의 사실을 토대로 倭館을 중수할 때에는 그 필요에 따라 間架를 증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여러 차례 거듭되어진 중수와 수리는 모두 조정의 담당이었다. 그리하여 왜관의 수리는 조선이 왜목수에게 역가를 지불하고, 물력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sup>71)</sup>. 공사방식이 이와 같이 시행된 이유는 일본양식을 이루기 위해서였다<sup>72)</sup>.

1751년에 이루어진 西館 三大廳 五行廊 重修 기록에는 왜목수가 家舍를 제작토록 하는 이유는 館宇의 제작이 조선과 다른데 있다고 하였다<sup>73)</sup>. 또한 1791년 開市大廳을 개건할 때에도 왜인의 집짓는 제도가 기이하고 정밀하며, 대청은 대들보 위에 장식어 중첩되어 倭工이 아니면 모양을 이룰 수 없으므로 전부터 왜인공장에게 대가를 지불하여 사역하였다고 한다<sup>74)</sup>. 그러나 이러한 사료를 근거로 하여 왜관이 왜인의 양식만을 고수하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1724년에는 我國 各色工匠이 동원되었고<sup>75)</sup>, 1831년 이후의 수리 및 중수에는 본격적으로 조선공장이 동원되었다<sup>76)</sup>. 결국 왜관은 일국의 양식으로만 이루어진 건물이었다고 하며, 시대에 따라 양식의 변천을 가진 건물임을 알 수 있다.

왜관경계의 내부에 있는 주요건물이 수리되고

있는 사이에 조선의 왜관관련 公廩가 함께 수리되고 있었다. 또한 왜관창건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公廩가 창건되기도 하였다. 公廩의 수리는 주로 宴享大廳과 草梁客舍에 관련된 것이었다. 순조 25년까지 기록된 「邊例集要」에 따르면 草梁客舍의 수리는 1735년에 한번 있었지만<sup>77)</sup> 다른 기록을 살펴보면 그 이후에도 수리가 계속된다. 1825년에 外三門의 改建<sup>78)</sup>이 있었고, 1874년에 객사전체를 중수<sup>79)</sup>하기도 하였다. 宴享大廳은 1708년과 1738년에 重修<sup>80)</sup>되었고, 1787년 出使譯官 金健瑞의 자원으로 개건되기도 하였다<sup>81)</sup>.

새로 지어진 건물에는 訓導의 집무처겸 거주처인 誠信堂과 別差의 집무처인 任所가 있었으며 모두 1727년에 건립되었다<sup>82)</sup>. 新設되거나 加設된 關防에는 伏兵幕과 設門이 있었다. 조선정부는 草梁倭館이 설립된 뒤에 보다 철저한 관왜들의 단속을 위해 步行限界을 약정하고 設門을 설치하였다.

「增正交隣志」에는 1678(숙종 4)년에 府使 李馥이 왜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限界를 엄격히 정해야 하므로 서쪽으로는 宴享廳을 건너지 못하게 하고, 동쪽으로는 客舍를 건너지 못하도록 하여, 이러한 규칙을 어긴 자는 對馬島로 보내자는 狀啓가 기록되어 있다<sup>83)</sup>. 또한 1679(숙종 5)년에는 동래부사 李瑞雨가 差倭와 함께 측량하여 관왜들에 대한 새로운 步行限界를 條約으로 정하였다<sup>84)</sup>. 그러나 새 규정을 정한 후에도 왜관의 越境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조정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1709(숙종 35)년에 設門을 설치하였다<sup>85)</sup>. 그리하여 이곳에 동래장

말하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70) 각각 '釜山和館竣工圖'의 좌측부분과 '倭館圖'의 하단부분이 代官家가 배치된 자리이다.

71) 「增正交隣志」, 卷3 (監董條).

72) 서관 3대청은 모두 일본양식으로 건축되었다고 한다. .... 東館西館의 六大廳は勿論 是れ附屬の建物は皆 日本様式に建物し..... 「釜山府史原稿」.

73)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辛未 閏5月.

74)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辛亥 11月.

75).....我國各色匠人限畢役排日使役者.....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甲辰 12月.

76) 「增正交隣志」, 卷3 (條監董).

77)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乙卯 7月, 「邊例集要」, 卷11 館宇 乙卯 10月.

78) 道光5年 乙酉 三月..... 「草梁客舍重修曆錄」.

79) 同治 十二年, 「草梁客舍重修曆錄」.

80) 연향대청의 중수를 을축년 8월에 요청하고 다음해에 4월에 중수하라는 허락을 받게 된다. 宴享大廳 多有頽落 不可不趁今重修 故論報道臣事.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乙丑 8月.....宴大廳重修使役軍 以各鎮軍卒中使役 材木取用於絕影島水營封山等處 則似無難便之事.....回啓 誠爲得宜 依啓施行.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庚寅 4月.

81)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丁未 8月.

82) 「東萊府志」, 草梁公廩條.

83) 「增正交隣志」, 卷4 (約條).

84) 「增正交隣志」, 卷4 (約條).

85) 權以鎭은 設門을 設置하자는 의견을 내 놓았다. 「邊例集要」에 따르면 權以鎭은 倭人이 訓·別의 집에 오기를 빙자하여 草梁閣間에 머물기 때문에 만약 훈·별의 집 서쪽 담으로부터 바다에 이르는 4백보의 땅에 연이은 담을 쌓아 그 가운데 설문을 두어 사신과 군관이 주야로 守直하도록 하고, 設門 밖

교 1명, 통사 1명, 문지기 1명을 배치하여 왜인의 僭越을 막고자 하였다. 또, 1739년 9월에 조정은 여인교간사건으로 인해 담장을 살피고, 三伏兵을 가설하여 六伏兵을 이루었다<sup>86)</sup>. 1760년 10월에는 왜인이 炭幕등을 직통하는 폐단이 있어 六伏兵 가운데 南二伏兵을 移設하기도 하였다<sup>87)</sup>. 이러한 關防의 가설 및 이설은 館倭가 草梁閭閻에 머무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시행되어졌다. 왜관관련 朝鮮公廩 및 부속건물의 신설과 수리는 요청 즉시 이행되어졌는데 특히, 1735년과 1738년에 공사를 마친 草梁客舍와 宴享廳을 수리할 때에 조정은 일본 측의 끈질긴 東大廳 수리요청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허가를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조정은 朝鮮公廩의 중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반면, 왜인이 偷毀한 곳은 조영하지 않으려 하였음을<sup>88)</sup> 알 수 있다.

### 3-3 役價의 調達

왜관의 소유권을 가진 조정은 수리공사에서도 왜관 창건 때와 같이 역가와 물력을 조달하였다. 보통, 조정은 역가와 물력을 합산한 공사비용을 지급하였으며 때때로 왜인이 물력을 들여오기도 하였는데<sup>89)</sup>, 왜관창건당시를 상호해보면 이러한 경우에도 조정은 일본이 마련한 물력의 값을 지불하였다. 조정은 역가와 물력을 지급하여 왜인이 제작토록 하는 방법과 조선의 목수와 물력, 노동력을 들이는 방법 가운데 선택하여 공사를 이행하였다. 후자의 방법은 1831년부터 시행되었고<sup>90)</sup>, 대부분은 전자의 방법을 통해 시행되었다.

최초의 大監董으로 사료되는 동서왜관수리의 경우 수리요구가 있던 해로부터 4년 동안 상기한 두 방법 가운데 최선책을 찾기 위해 공사허가를 내리지 않았다. 처음에 東萊府使 鄭滌는 왜측에서 館守倭家の 工費로 銀價 7,000냥에 별도의 物力(役軍

이 포함된)을 요구하니 우리가 처음부터 담당하여 수리하자는 장계를 올렸다. 이에 좌의정 李世白은 전례대로 土卒을 사역하고 왜관근처 遊手와 役軍을 고용하자는 구체적인 의견을 제안하고, 이를 허락하는 임금의 하교를 받게된다. 그러나 왜인들과 다시 가격을 논한 결과 7,000냥으로 책정되었던 역가가 5,000냥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명령은 번복되게 된다. 결국, 좌의정 李世白은 재목의 수가 많지 않고 卍材의 길이가 달라 운반하기 어려우며, 기근과 역질로 왜관근처에 遊手를 모집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책정된 5,000냥의 역가를 기준으로 왜인들로 하여금 修改함이 나올 것 같다고 장계를 올렸다. 곧 이를 허락하는 임금의 전교가 내려졌으며 공사가 시행되게 되었다<sup>91)</sup>. 이러한 사례는 당시 조선이 衙門의 당갈을 막기 위해 얼마나 많은 주위를 기울였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왜관 수리비용의 조달 및 지급은 조선의 제정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었다. 大監董의 경우 수리규모에 따라 적게는 7,000냥에서부터 많게는 53,000냥에 이르는 막대한 수리비용이 지출되기도 하였다. 사료에 기재된 여러 수리 가운데 상세히 역가의 내역을 기록한 몇 가지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02년 수리를 마친 東·西倭館 수리는 약 5,000냥의 銀價가 지급되었고, 館宇를 수리하는데 사용되는 재목은 對馬島에서 실어왔으니 그 물력과 역가를 합하면 약 7,000냥이 되었다<sup>92)</sup>.

1724년에 수리를 마친 西館 三大廳 五行廊 重修<sup>93)</sup>의 총 경비는 16,010냥 7전 2푼이며, 그 안에 조선의 노동인력도 동원되었다.

1740년에 수리를 마친 西館 東大廳 東行廊 수리는 (표 3.)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 8,809냥을 소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조선의 노동인력인 役軍이 5,730명이나 동원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왜관수리를 위해서는 많은 경비와 인력, 그리고 物力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특히 (표 3.)에서는 왜목수와 조선목수에게 지급된 역가가 명시되어 그 차이를 분명히 살필 수 있다. 왜목수, 인거왜, 역부왜에게는 매일 각각 2전씩을 지급하였고, 조선목수는 매일각각 3전씩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창건당시와 달리 조선목수에게 더 높은 역가가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로서는 왜목수에게만 해당되던 화폐지급이 조선목수에게도

3400보 밖의 근처민가에 훈·별의 집을 옮겨두고 훈·별의 집 앞에 通事廳을 옮겨두자고 하였다. 「增正交隣志」에도 ‘初無設門 肅宗三十五年己丑府使權以鎖始設’ 라고 기재되어 있어 숙종 35년에 설치된 사실을 더욱 명확히 해준다. 그러나 權以鎖의 의견대로 通事廳이 이 때 창건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86)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己未 9月, 庚申 閏 6月.

87)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庚辰 5月, 1791년 12월에는 6처 伏兵 27間을 材瓦를 너해 修補하기도 한다.

88) 「倭館移建謄錄」 가운데 倭館看儉節目에 나타나 있다.

89) 「倭館修理謄錄」, 庚戌, 4月15日.

90) 「增正交隣志」, 卷3 (館宇條).

표 3. 1733년 東大廳 東行廊 修理의 役價와 物力價  
(출전: 『邊例集要』, 권11, 館宇條, 庚申 8월.)

匠人/赴役 및 物力	給價	급가내용 및 물력의 양
倭木手12명 引鋸倭 6명 役夫倭10명	1,142냥	七朔(204日) 每名 2전
我國役軍, 監官, 庫子	1,832냥	每日每名 役價 3전
地瓦35納, 燔造時工匠役軍	473냥	料布雜費并錢
正鐵	164냥	1300斤 每斤 1전 5분
炭	103냥	400여 섬, 每名價錢 2전 5분
治匠	112냥	1일 2명씩 每石每日2전
我國木手	489냥	매명 8명씩 赴役 204일 매명매일 3전
假家所入草芫 生葛 空石 藁草 簾索 草芫	(각각의 物 價錢은 사 료에 기록 되지 않음)	100番 100同 500立 50同 50同 50立
物價錢 合	83냥	
間間饋酒浮費錢, 雜物價錢	112냥	
令巡營先下鐵	4,200냥	(물력의 양은 사료에 기록되지 않음)
自大丘下釜山馬 貫錢	99냥	
총합계	8,809냥	

적용되고 있었는데, 이는 왜관 조영에만 해당되는 사항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첫째, 17~18세기 관영 영선을 기록한 의궤서 가운데 「景慕宮改建都監儀軌」에서만 이례적으로 목수의 역가 지급에 화폐가 도입된 사실을 기록<sup>94)</sup>하고 있는데, 이 기록은 西館 東大廳東行廊수리보다 36년 뒤인

1776의 것이므로 西館 東大廳 東行廊 수리 때와 같은 경제상황이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둘째, 西館 東大廳 東行廊 수리와 비슷한 시기에 인접한 장소에서 시행된 草梁客舍 수리(1737년)에 조선목수에게 料米가 지급된 사실과도 대조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를 좀더 정확히 규명하려면 언제부터 역가가 화폐로 지급되었는가에 대한 문제부터 밝혀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는 차후에 진행되어져야할 과제이다.

왜관수리를 살펴보면 물력 지급의 다양한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데 크게 儲置米를 作錢하여 경비를 조성한 경우와 역관이 고리대를 활용하여 경비를 조성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먼저 저치미로 경비를 조성한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24년에 공사를 마친 西館 三大廳 五行廊의 重修때, 조정은 경상도 각 고을에 있는 儲置米 9,000섬을 監董譯官에게 출급하였다. 이에 監董譯官은 儲置米를 公作米로 相換하고 밀천을 남겨(存本取贏) 역가를 지급하여, 가을에 本色米를 갖추어 납부하였다<sup>95)</sup>. 이러한 방식을 통해 조정은 당년의 공사비 16,010냥 7전 2푼을 지불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1728년에 필역한 東館 三大廳 重修 때에도 조정은 儲置米를 활용하게 된다. 儲置米 1,550섬을 작전하여 7,000냥으로 경비를 조성하였는데 이를 監董譯官 金壽九가 전담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金壽九는 7,000냥으로써 館守倭家 93칸 밖에 조성하지 못하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조정은 崔岱齊를 대입하여 나머지 114칸을 짓게 하였다. 이때에도 金壽九가 偷食하여 부족한 경비를 儲置米 5,000섬을 이용해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sup>96)</sup>.

고리대(殖利)를 활용한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방식은 왜관수리규모의 증가로 인해 자연스럽게 증가된 역가지급의 방편으로 활용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왜관수리를 담당하게 된 監董譯官들은 殖利를 통해 경비를 마련하였다. 이 고리대의 자본은 東萊府를 비롯한 지방관아의 재

91) 『倭館移建曆錄』, 庚辰 正月 20日, 庚辰 3月 21日.  
92) 『倭館移建曆錄』,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庚辰.  
93)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甲辰 12月.  
94) 金東旭, 前掲.  
95) 『倭館移建曆錄』, 壬寅, 3月 初9月, 『春官志』, 卷3, (館修理條) 에 잘 기록되어 있다.

94) 金東旭, 前掲.

정이 비축된 것으로 마련되었다<sup>97)</sup>. 고리대의 자본으로는 공무역으로 수출하기 위해 비축된 公木과 공작미와 대출한 官貨등이 이용되었으며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못하면 私錢을 대출하였다<sup>98)</sup>.

1728년에 공사를 마친 東館 三大廳 중수때 監董譯官 崔岱齊는 수표로 公木 100통을 作米하여 殖利를 통해 왜관수리의 경비를 마련하였으며 이것으로도 경비조달이 어려워지자 私貨 4,000냥을 이용해 역가를 지급하였다<sup>99)</sup>. 1740년 西館 東大廳의 행랑을 짓는 일에 監董譯官 朴春瑞와 玄德淵은 東萊府에 비축되어 있던 公木을 作錢하였다. 그들은 이것으로 殖利를 하여 인건비와 물력을 조달하였다<sup>100)</sup>. 이러한 工錢의 조달방식은 왜관수리를 이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동시에 역관의 私財를 증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공사의 규모가 커져 많은 공사비용이 필요할 때에는 상기한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동원되기도 하였다. 1715년 東·西館 三大廳 五行廊을 중수하는 일에는 조정에서 지급하는 公木 150통을 代錢하여 17,250냥을 만들었는데, 5,493냥은 東館의 監董官이 가져가고 나머지 11,756냥 6전을 西館 監董譯官이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부족하여 私貨를 가져가 쓰게되었으며 또한, 監營과 統營에서 빌린 돈으로도 부족한 것은 鑄錢을 통해 마련하기도 하였다<sup>101)</sup>.

이 외에도 1686년의 館守家 수리때는 監營에서 비축하고 있는 銀을 東萊府에 이송하여 먼저 왜관 수리비용으로 조달한 뒤 각 읍의 대동미를 거두어 감영에 채워주는 방법을 쓰기도 하였다<sup>102)</sup>. 1780년과 1801년 東·西館 수리 때에는 年例送使를 정지하여 왜관수리비용을 조달하기도 하였는데<sup>103)</sup>, 이를 계기로 1801년부터는 왜관수리 동안의 연례송

사비를 減去하는 전례가 생기게 된다.

이처럼 조정은 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저지미를 作錢하는 방법과 殖利를 활용한 방법으로 해소하였다.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도 부족분이 발생하면 鑄錢이나 대동미를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 공사비 조달을 위한 차선택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도 하였다. 왜관관련 朝鮮公廩의 수리비용도 상기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조달되었다.(표 4. 참조)

1737년 공사를 마친 草梁客舍의 修改에는 도합 962냥 4전 1푼이 소요되었으며, 이 修改工事に 마련된 돈은 南倉錢 1,000냥을 이자없이 빌려서 立本取贏한 것이었으니, 앞서 서술한 왜관수리와 비슷한 방식을 통해서 역가와 물력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朝鮮公廩의 수리는 비교적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수리요청이 생기면 지연없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물력을 갖추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草梁客舍의 수리인데, 封山부근의 風落木을 작별하는 방식을 취했다<sup>104)</sup>.

표 4. 1737년 草梁客舍修改의 役價와 物力價  
(출전:『邊例集要』, 권11, 館宇條, 甲寅, 8월.)

물력재와/ 인력	급가 및 물력의 양
正廳, 東西軒, 中門, 大門, 體木, 修粧木	269株 (합51칸)
木手30명, 治匠1명, 監董 監官2인, 色吏 1인, 庫子2명, 火丁 4명, 蓋瓦 仰土 5명, 畫員 25명	限一朔料米/甘醬/饌價 酒, 米, 曲子, 布 지급
彩色	(사료에 기록되지 않음)
地瓦	5 訥
正鐵	400근
炭	40섬
石灰	20섬
塗褙紙	(사료에 기록되지 않음)
龍亭子	(사료에 기록되지 않음)
都合	962냥 4전 1푼
儀仗所入各色紬緞	111냥 9전

또한 1737년 宴享大廳의 수리 때에는 絶影島에서 목재를 얻기 어렵게 되자 右道봉산에서 얻도록 하였다<sup>105)</sup>.

97) 倭學譯官은 관청고리대를 통해서 이미 고리대 운영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들은 주로 조선이 부담해야 하는 왜관의 개·증축비용, 移館비용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리대를 하고 있었다. 양홍숙, “17~18세기 倭學譯官의 對日貿易”,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50, 1797년에 공사를 마친 西館 東大廳 東行廊의 重修에는 南倉 濟民倉의 9,000냥을 빌렸다.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98) 『通文館志』에 기재된 사실을 토대로 하면 이러한 고리대는 왜관창건 때에도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通文館志』, 제7 人物.

99)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戊申 5月.

100)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庚申 8月.

101)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辛未 閏5月.

102)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丙寅 10月.

103)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戊寅 12月.

104)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역가지급 문제도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출사역관 金建瑞의 활약은 왜관일대의 책임을 맡은 임관의 朝鮮公廩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된다. 金建瑞는 1787년 8월에 私錢 1400여 냥을 변통하여 宴享廳 수리비용을 해결하였고<sup>106)</sup>, 1791년에는 金徽重과 함께 私錢 700여 냥을 들여 6처 伏兵 27칸의 수보를 시행하기도 했다<sup>107)</sup>.

### 3-4 監董譯官의 活動과 修理人力

草梁倭館의 수리는 釜山鎭이 주관하고 각 鎭에서 나누어 담당하였다. 西館의 東大廳가운데 第1船 送使가 머무는 곳은 多大鎭이 西行廊은 豆毛鎭이, 東行廊은 多大鎭이 각각 나누어 수리를 담당하였다. 參判使가 머무는 中大廳(參判館)은 包伊鎭이 담당하였고, 中大廳에 부속된 西行廊과 東軒 2칸은 西生鎭에서 西軒 2칸은 開雲鎭에서 각각 수리를 하였다. 副特送使가 머무는 西大廳은 西平鎭에서 나누어 수리를 하였다. 또한 선창은 豆毛浦, 開雲浦, 包伊浦, 多大浦 등의 각 鎭에서 나누어 담당하였다. 이는 草梁倭館 이전의 왜관인 豆毛浦倭館의 수리가 부산진의 전관 하에 이루어졌던 사실과 매우 다른 것으로, 豆毛浦倭館 시절에 비해 규모가 증가한 草梁倭館의 수리를 효율적으로 담당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즉, 조정은 왜관창건의 경험을 통해 체계적 수리절차를 마련하고자 하였는데 감동관의 차출은 조정의 그러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일례라고 할 수 있다. 왜관창건 때에는 訓導와 別差가 조선의 명령과 왜측의 요구 사이에서 왜관행정전반의 문제와 더불어 감동문제에 관한 현안을 타결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지만 수리 때에는 監董譯官을 두어 감동에 관한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논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監董譯官은 처음엔 한 명만 전담하다가<sup>108)</sup> 공사규모에 따라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sup>109)</sup>. 1745년과 1801년처럼 東館과 西館을 동시에 수리할 때에는 東·西館을 나누어 감역토록 하였으며, 東館보다 규모가 큰 西館에 한두 명의 監董譯官을 더 임

명하기도 하였다<sup>110)</sup>.

이들 監董譯官은 訓導·別差를 거친 倭學譯官으로써 창건당시의 訓·別에게 일임된 것과 같은 임무를 수행할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監董譯官이 수행하는 임무의 성격은 기존의 訓·別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監董譯官은 오로지 왜관수리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임명된 역관이며, 監董에 관련된 모든 일의 책임자였다. 이들은 差倭와 직접 상견하고 그들의 수리요구를 수궁하거나 책유하는 임무를 가짐과 동시에 물력과 역가지급에 관한 사항 또한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수리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아닌지는 監董譯官의 활동에 달려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役價와 物力價를 조달하는 경제적 급원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조정은 監董譯官의 역할을 살펴 적절히 論賞하기도 하였다.

당시 監董譯官은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때때로 이들은 일본인과 공모하거나 과다하게 왜관수리비를 책정하여 개인적 이익을 꾀하기도 하였다. 1728년에 공사를 마친 東館 三大廳 重修 때에는 감동역관 金壽九의 儉食으로 도중에 감동역관이 遞易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倭學譯官이 왜관건물의 수리공사에 감동역관으로 참여하면서 사적인 부를 축적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倭館看儉節目에 따르면 訓·別은 매월 초하루가 되면 왜관에 들어가 건물들의 상태를 일일이 기록하고, 수본을 작성하여 東萊府에 올리게 되어있었다. 이 때 역관들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조선에 유리한 방향으로 소요경비와 工期가 줄어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많은 폐단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감동역관의 활동은 왜관수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다.

1698년에 訓導 朴有年과 朴再興은 수리하는데 필요한 소요비용을 정확히 摘奸하여 마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측이 요구하는 대로 7,000냥을 책정하여 유배당하기도 하였다<sup>111)</sup>.

또한 監董譯官 金壽九는 1728년에 館守倭家 73칸, 大門 18칸, 中門 18칸, 開市大廳 60칸, 裁判倭家 46칸, 大門 2칸, 中門 1칸 등 도합 204칸을 수리하기로 결정하고 儲置米 1550섬을 作錢한 7,000냥을 지급 받아, 겨우 90여 칸만 조성하여 도중에

105)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丁巳, 閏9月.

106)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8月.

107) 「邊例集要」, 卷11 (館宇條), 辛亥, 12月.

108) 1690년에 공사를 마친 관수왜가 수리 때는 韓天錫이, 1702년에 공사를 마친 東·西倭館修理 때는 박재홍이 감동관으로 활약하였다. 「倭館移建曆錄」, 「邊例集要」, 卷11, 館宇.

109) 「倭館移建曆錄」, 壬寅, 5月, 初10日.

110) 「倭館移建曆錄」, 「倭館修理曆錄」, 「邊例集要」.

111) 「備邊司曆錄」, 숙종 28년, 5월 3일.

공사를 중지해야 했다. 그는 儲置米 1,550섬을 작전하여 조달된 6,795냥 가운데 4,035냥 1전 4푼만 공비로 사용하고, 倭匠에게 지급할 역가로 은 363냥 6전과 糧米 3,000섬도 지급하지 않고 儉食하였던 것이다. 조정은 舊材와 舊瓦를 사용하였음에도 館守倭家 90칸만 겨우 조성한 壽九를 수상히 여겨 崔岱齊에게 監董譯官을 임명하였다<sup>112)</sup>.

상기한 바와는 반대로 임무에 충실한 역관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 없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監董譯官은 金建瑞였으며 조정은 적절히 論賞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修理處 摘奸, 공사비의 상의 및 책정, 공사비 소요정도의 일차적 결정권이 감동역관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일차적인 수리 집행자는 감동역관이었던 셈이며, 그러한 이유로 이들 감동역관의 활동이 왜관수리공사에 미친 영향은 절대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그들의 활동은 間架의 數나 공사 정밀도와 같은 조영전반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수리공사의 집행자를 감동역관으로 본다면 실제조영을 담당한 주체가 누구였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조정은 21건 가운데 14건이나 되는 수리공사에서 왜목수로 하여금 家畬를 제작하도록 하고 공사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이 때 왜측에서 보내온 공사인력에는 監董頭倭, 木手倭, 引鋸倭, 泥匠倭, 役夫倭 등이 있었다. 이들은 공사규모에 맞추어 숫자를 달리하였지만 일관된 구성을 한 하나의 공사조직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공사집행관리로 보이는 監董頭倭(修理次知倭, 監董次知倭)가 工匠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工匠에는 일반공장인 各色工匠倭, 木手倭, 미장담당인 泥匠倭 등이 있었고 그 외에 잡역을 맡은 役夫倭와 부재의 마름질을 맡은 引鋸倭 등이 수리공사에 참여하고 있었다<sup>113)</sup>.

조선의 인력은 단순한 잡역을 맡은 역부에서 技術工인 匠人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었다. 공사초기에는 주로 왜측에서 기술자를 제공하고, 조선은 역군과 같은 단순 잡역부를 제공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sup>114)</sup>, 이후에는 조선에서도 적극적으로 수리공사에 참여하는 추이를 보인다<sup>115)</sup>. 1724년에 마친 西館 三大廳 五行廊의 중수에는 조선인력(我國各色工匠)의 참여가 있었으며, 1733년에 마친 西館 三大廳 五行廊 수리에도 조선장인과 역군의 연인원이 5,730명에 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왜관수리를 통해 조선과 일본은 서로의 조영기술을 교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또한, 1831년 이후의 왜관수리는 본격적으로 조선목수들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sup>116)</sup>. 이러한 조영인력구성의 추이를 통해 왜관 양식의 변화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창건을 위해 倭木手 150명을 부산포에 이접시킨 사실이나 倭館을 장지로 수장한 사실은 草梁倭館이 창건 때부터 일본양식으로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1791년 開市大廳을 개건할 때에도 대청 대들보 상부에 중첩된 장식 등의 일본양식을 이루기 위해 倭工匠을 사역하였던 점이나, 왜관 내부에 多多味家を 설치한 점과 木手倭家を 설치한 점은 수리기간 가운데에도 草梁倭館을 일본양식으로 유지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기간에는 조선목수와 왜목수가 함께 수리공사에 참여하였으므로 내부적으로는 양국의 조영기술이 교류되었다고 할 수 있다. 1831년 이후의 수리는 조선목수들에 의해서 시행되었다. 조선공장들은 이미 초기의 수리기간동안 일본목수와 함께 수리에 참여하여 일본가사의 규제를 익혔으므로 왜관양식을 조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왜인의 양식을 그대로 지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시기는 상반된 대외의식과 易地通信에 의해 교린체제가 변질되어 가던 무렵이었으므로 조선이 일본양식의 건물을 유지시키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春官志」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양식의 부재는 그 단면이 가

112) 경상감사 박문수의 장계에 김수구가 투식한 실상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監董譯官 金壽九가 204칸의 價銀을 儉食하여 다만 90칸을 지음이 진실로 무상합니다. 고로 金壽九 대신 崔岱齊로 하여금 김수구가 짓지않은 집 114칸을 조성하게 하옵소서.....”, 「倭館修理騰錄」, 戊申, 7월 27일.

113) 「倭館移建騰錄」, 「倭館修理騰錄」.

114) 첫 대감동으로 사료되는 동 서왜관수리 때에 조선이 價銀 외에 들일 물력 가운데 역군이 포함되어 있었다. .....上項折價銀外所入役軍及蓋瓦, 椽木, 篋竹, 藁草, 藥索, 熟麻索, 山麻索, 葛索, 雜物別爲備給爲良沙可以擔當修理..., 「倭館移建騰錄」, 庚辰, 正月二十日.

115) 「倭館修理騰錄」, 己酉, 10월 12일.

116) 「增正交隣志」에는 1831년부터 왜관공사에 우리나라 工匠을 쓰기 시작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邊例集要」 및 「倭館移建騰錄」에 따르면 1831년 이전에도 조선공장이 왜관공사에 동원된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增正交隣志」의 기록은 1831년부터 조선공장의 주체로 조영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5. 草梁倭館의 工事沿革

(이 표는 「邊例集要」, 권11, 館宇條, 「倭館移建曆錄」, 「倭館修理曆錄」, 「增正交隣志」, 「釜山府史原稿」, 張舜顯, 「조선 후기 초량왜관의 수리실태」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增正交隣志」에는 서관 네행랑 수리이후 5차례의 중수 및 수리명칭을 기록하였으나 공사내용은 없다.

공사내용	공사기간	공사비	감동역관	건축내용	인력구성 및 기타 건축
초량왜관 창건	1675-1678	쌀 9,000섬, 은 6,000냥	金謹行, 朴再興, 洪禹再, 朴有年	家舍 796칸 반 塙垣 1,630칸5자	왜목수 150명(대목수 70명, 소목수 80명) 我國木手, 助役, 炊飯僧人的 합 2,213명
관수왜가 화재	1684-1690	3600냥	韓天錫	50칸→50칸	修理次知倭 2명, 役夫倭 12명
동. 서 왜관수리	1700-1702	7000냥	朴再興	기록이 없음	
서관 동대청 서행랑 화재	1715-1715	672냥	崔尙집, 金顯門	56칸→56칸 11자	倭館造成監董頭倭 2명 木手倭 12명, 引鋸倭 6명, 泥匠倭 1명, 役夫倭 10명 1708년 宴享大廳 重修 1709년 設門설치
서관 삼대청 오행랑중수	1723-1724	16010냥 7전 2푼	韓重億, 朴泰信, 卞 箕和	594→941칸	我國各色工匠, 倭匠人 監董次知倭 2인, 役夫倭 2명, 木手倭 15명, 引鋸倭 6명, 泥匠倭 1명
동관 삼대청 중수	1727-1728	5887냥5전	金壽九→崔岱齊	207칸	東館修理監董次知倭 2인, 役夫倭 2명, 木手倭 6명, 引鋸倭 2명, 泥匠倭 1명 1727년 成信堂, 任所 건설
서관 동대청 동행랑 화재	1740-1740	2974냥	朴春瑞 玄德淵	56칸→56칸 11지 5치	조선역군 5,730명 동원, 我國木手 매일 8명씩(204일) 동원 倭木手 12명, 引鋸倭 6명, 役夫倭 10명 1735년 草梁客舍修理 1738년 宴享大廳 重修 1739년 6복병 설치
동. 서관 삼대청 오행랑중수	1749-1751	34089냥 15전 12푼	동관(朴尙淳, 前 主簿, 崔鶴齡) 서관(玄德淵, 愼 榮來, 黃夏成, 玄 尙老)	관수가(93칸) 재판가(51칸) 개시대청(60칸) 서관(941칸)	
	동관 1749-1750				
	서관 1749-1751				
서관 동대청 동행랑 수리	1667-1667	6370냥 5전		85칸	
동. 서관 삼대청 수리	1773-1775	53800냥	동관(玄啓根, 李 命和) 서관(玄商 顯, 卞光秀)	관수가(93칸) 재판가(51칸) 개시대청(60칸) 서관(941칸)	
	동관 1774-1775				
	서관 1774-1775				
서관 동대청 서행랑 화재	1786-1787	13500냥	李命和, 趙重明	85칸	
동관 개시대청화재	1791-1791	13500냥	金健瑞, 金微重	開市大廳 39칸 등(代 官倭 합 135칸) → 동대청 60칸, 倭館守門 守直廳舍 20칸, 6처 伏 兵 27칸	
서관 동대청 동행랑 중수	1796-1797	9000냥	金微重, 朴致俊	85칸	
동. 서왜관 수리	1802-1804		동관(洪達洛, 丁樂 升) 서관(崔國禎, 趙 完澤, 玄商緯, 金 在恭)		
동대청 서행랑 중수	1815-1815				
서관 중대청 화재	1826-1828		玄義洵	80칸	1825년 草梁客舍外三門 改建
서관 네행랑 수리	1831-1832				조선측 공장 사용

늘기 때문에 쉽게 부식되어 바닷가에 자리잡은 왜관에는 적당치 않았다. 그러므로 조선목수들은 왜인의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범위 내에서 일본양식을 지켜주었을 것이다. 이처럼 草梁倭館은 수리기간 동안 양국의 조영활동 교류를 통해 양식의 변화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상의 초량왜관의 창건·수리 및 중수에 대한 변천사항을 (표 5.)에 정리하였다.

#### 4. 結論

초량왜관의 조영 역사를 고찰하고, 건축내용의 변화상을 규명하여 이를 통해 공사관리국인 조선의 조영의지를 살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75년 8월에 착공되어 1678년 4월에 낙성되기까지 약 3년에 걸쳐 진행된 왜관창건공사에 조영된 건물에는 東館 三大廳과 西館 三大廳, 그리고 倭側私造家舍가 있으며, 왜관의 外牆밖에 설치된 朝鮮公廩로 公須間을 포함한 宴享廳이 있었다. 또한 關防으로는 守門과 北門이 있으며, 伏兵幕 3處가 있었다. 조선은 왜관의 주요건물인 東館과 西館, 關防인 守門과 北門, 伏兵幕, 그리고 왜관부속 건물인 宴享廳을 조영하였다. 일본은 倭側私造家舍인 封進庫, 什物庫, 東向寺와 代官家, 鷹房 등을 지었으며, 外牆을 축성하였고, 西館의 中大廳 가운데 일부를 덧 짓기도 한 것이 밝혀졌다.

왜관수리는 1684년부터 1864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21건이 시행되었으며, 그 가운데 大監董은 5회, 小監董은 16회에 달한다.

왜관수리공사에는 규모를 그대로 지키는 수리와 칸수를 늘려 짓는(增築) 중수가 있었는데 1724년을 기점으로 적지 않은 규모로 증축되기 시작한다. 대규모의 間架增築은 17~18세기에 활발한 朝日貿易活動이 전개되면서 발생되었으며, 이에 조정은 먼저 倭使들이 머무는 西館부터 증축하였다.

왜관은 창건과 수리를 거듭하며 증축되어 공사내용이 증가하였으며, 각 건물마다 조영주체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조정은 館宇수리의 책임을 조정이 조영한 건물로 한정하였고, 왜인이 훼손한 곳은 수리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왜관공사에 소요된 역가와 물력의 지급내용을 살피고 왜관공사 중요도 인식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왜관창건과 수리 때 소요되는 역가와 물력은 모

두 조정에서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조정이 왜목수의 인원 수 조정이나 역가지급의 규칙 등을 결정하여 이행하였다. 창건 당시의 역가는 東萊府 稅銀과 倭館 被執物貨를 이용하였고, 料米는 賑恤廳이나 常平廳에서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수리 때에는 儲置米나 監董譯官의 私錢 또는 官貨를 殖利하여 조달하였다. 위의 사실은 당시 왜관공사가 東萊府와 조정에 많은 부담이 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데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도 조정이 왜관을 조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왜관을 조선정부의 소유로 인식하고, 평화적 외교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겼기 때문임이 분명하다.

또한 조정은 창건공사에 투입된 왜목수에게, 조선목수에게 지급되는 것 보다 더 많은 料米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1733년의 기록에 따르면 왜목수보다 조선목수에게 더 많은 工錢을 지급하고 있으며, 1831년 이후에는 조선목수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추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로써 교린관계의 정도에 따라 왜관공사의 중요도 인식도 다양하게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감동역관의 집행활동과 공사인력의 조영활동을 통해 양국의 건축생산활동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건당시 공사집행의 실질적 인물은 訓導와 別差였으며, 이들은 조정과 왜인의 사이에서 중요한 현안을 타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수리 때에는 監董譯官이라는 직제를 마련하여 이들에게 왜관수리의 지급을 전담토록 하는 권한을 주었다. 이들은 修理處 摘奸, 공사비의 책정, 공사비 소요정도의 일차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들의 임무 수행 정도가 왜관조영에 미친 영향이 아주 컸음을 엿볼 수 있었다. 왜관의 東館과 西館은 모두 監董譯官의 집행 하에 조영되었으나 실제 왜관의 공사인력은 工匠과 役夫였다. 왜관의 조영인력은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창건당시에는 왜목수 150명과 조선목수가 함께 조영활동을 펼쳤고, 수리초기에는 왜목수 중심의 조영활동이 전개되었다. 창건시기와 수리초기의 조선목수에게는 일본양식이 생소하였다. 그러므로 왜관조영 초기에 조선은 왜목수에게 역가를 지불하고 물력을 준비하는 방식을 택하였던 것이다.

1723년 이후 수리공사에는 상당수의 조선인력이 동참하고 있었는데, 조선의 인력에는 역부뿐만 아니라 匠人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시기에 왜관은

양국의 건축공사 관례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장소가 되었다. 1831년 이후의 왜관수리는 본격적으로 조선목수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조영인력구성의 추이를 통해 왜관 양식의 변화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초량왜관은 창건 때부터 일본양식으로 조영되었다. 開市大廳개건 때에도 倭工匠을 사역하였던 점이나, 多多味家등을 설치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수리기간 가운데에도 일본양식이 지켜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723년 이후 수리공사부터 상당 수 조선인력이 공사에 동참하였는데, 이 때부터 조선목수와 왜목수가 자연스럽게 서로의 조영 기술을 소개하고 배울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831년 이후의 수리에는 본격적으로 조선공장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 시기는 상반된 대외의식과 易地通信에 의해 교린체제가 변질되어 가던 무렵이었으므로 조선이 일본양식의 건물을 유지시키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왜인의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범위 내에서 일본양식이 지켜진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草梁倭館은 수리기간 동안 양국의 기술 교류를 통해 양식의 변화가 가능하였던 것이다.

### 참고문헌

1. 「倭館移建曆錄」, 奎章閣 圖書 12892.
2. 「倭館修理曆錄」, 奎章閣 圖書 12923.
3. 「邊例集要」, 國史編纂委員會, 1970.
4. 金建瑞 著, 하우봉, 홍성덕 譯, 「增正交隣志」, 민족문화추진회, 1998.
5. 「通文館志」, 사단법인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6. 「春官志」, 법제처, 1976.
7. 「釜山府史原稿」, 倭館篇, 民族文化, 1986.
8. 「太宗實錄」, 國史編纂委員會, 1955.
9. 「顯宗改修實錄」, 國史編纂委員會, 1955.
10. 「肅宗實錄」, 國史編纂委員會, 1955.
11. 「草梁客舍外三門改建曆錄」, 「草梁客舍重修曆錄」,各司曆錄13, 國史編纂委員會, 1982.
12. 「備邊司曆錄」, 國史編纂委員會, 1990.
13. 양홍숙, “17~18세기 倭學譯官의 對日貿易”,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14. 孫承喆, “朝鮮時代 韓日關係史 研究”, 「지성의 샘」.

15. 張舜順, “朝鮮後期 草梁倭館의 修理實態”, 제46회 한일관계사학회월례발표회, 1998년 6월 13일.

#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Choryang-Weagwan*

Kim, Soon-il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

Chung, Ye-jung

(Graduate Student, Pusan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concerns especially *Choryang-Weagwan* which was the largest Japanese House left in Pusan through Chosun Dynasty.

*Choryang-Weagwan* was known to have been jointly constructed by Korean and Japanese carpenters. Therefore, *Weagwan* was a place for exchange of architectural tradition (special features such as sliding door and straw mat) between Korean and Japan. Judging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certain that mutual influences helped to shape architecture of *Choryang-Weagwan*.

After establishment *Choryang-Weagwan* was gradually extended, owing to the prosperity of trade with Japan. But since late 18th century government of Chosun did not give as much care to maintaining *Choryang-Weagwan* as a result of deteriorating condition of commercial and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From the beginning of *Choryang-Weagwan* construction, Superintendents of the construction were called *Hun-do* and *Byl-cha*, who acted as official interpreters as well. And, during construction works, they were called *Gamdong-gwan*,

At the start of construction, *Weagwan* was built partly in Japanese-style by the carpenters from *Tokugawa* Shogunate. But as time passed, the participation rate of Japanese carpenters diminished gradually. After 1831, Japanese technician vanished extremely and repairing construction was continued by the Korean workers only.